

#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 기 영

(대전광역시 동신고등학교 양호교사)

## 목 차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2) 도구

### III. 조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흡연의 실태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I. 서 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져 있으나 흡연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흡연율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데, 특히 선진국에서는 여성 흡연율이 급속히 감소하

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기는 개체발달과정에서 자아주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인격기능을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흡연의 용납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박명윤, 1992)

특히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담배의 독성가운데 인간을 흥분시키고 대담성 및 경박성을 지니게 함으로서 신체발육과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할 성장기에 있어서 큰 장애의 요인이 됨을 고려할 때 성인보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다. (정경임, 1980)

담배를 피우면 그 속에 있는 니코틴에 의해서 약물학적인 의존성이 생기며, 아울러 습관이나 환경 등에 의한 사회적 심리적 의존성이 생겨 담배에 의존하게 되므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김일순, 1988. 금동우, 1988).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심리에 작용하여 인격을 파괴하며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창수, 1984)

이에 본 조사자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2개의 고등학교 남학생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 분석하였는데, 지역적으로 대상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며 그들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청소년 흡연 선도방안 모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II.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 남학생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3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348명(99.4%)으로부터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비한 98명을 제외한 250명을 본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1995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리 준비된 설문지에 의거하여 학과시간을 통해 무기명으로 작성토록 하되 사전에 조사자의 충분한 설명 후 응답하도록 주의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있어서의 통계처리는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2) 도구

본 조사에 필요한 사실자료는 본 조사표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흡연 실태 전반에 걸쳐 참고가 될 자료를 직접 학생들에 의해 기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표의 작성은 임태빈(1976), 정경임(1980) 논문의 조사표를 참고하여 본 조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6문항, 흡연실태 및 흡연에 관한 지식 등 17문항이다.

## III. 조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장지, 생활정도,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종교를 조사하였다.<표-1>

연령은 18세가 178명(7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7세가 66명(26.4%)으로 나타났다. 성장지 분포는 도시가 201명(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촌이 42명(16.8%)이었다. 생활정도는 206명(82.4%)이 중류생활로 가장 많았고, 하류 생활이 26명(10.4%), 상류생활이 18명(7.2%)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115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국졸이 23명(9.2%)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이 112명(44.8%)으로 가장 많

았으며, 전문직이 14명(5.6%)을 차지했다. '종교는 없다'가 86명(34.4%)으로 나타났고, 천주교가 21명(8.4%)이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
연령	16세	3	(1.2)
	17세	66	(26.4)
	18세	178	(71.2)
	19세	3	(1.2)
성장지	도시	201	(80.4)
	농촌	42	(16.8)
	기타	7	(2.8)
생활정도	상	18	(7.2)
	중	206	(82.4)
	하	26	(10.4)
부모의 교육정도	무학	5	(2.0)
	국졸	23	(9.2)
	중졸	46	(18.4)
	고졸	115	(46.0)
	대졸이상	61	(24.4)
부모의 직업	공무원	40	(16.0)
	회사원	35	(14.0)
	자영업	112	(44.8)
	전문직	14	(5.6)
	노동	49	(19.6)
종 교	기독교	61	(24.4)
	불교	77	(30.8)
	천주교	21	(8.4)
	유교	5	(2.0)
	없다.	86	(34.4)
총 계		250	(100.0)

### 2) 흡연의 실태

#### (1) 흡연정도

응답자의 44.0%가 한번도 피워 본적이 없으며, 응답자의 56.0%는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흡연정도

흡연정도	N	%
① 한번도 피워 본적이 없다.	110	44.0
② 몇 번 피워 본적이 있다.	64	25.6
③ 가끔 피우고 있다.	34	13.6
④ 습관적으로 피우고 있다.	42	16.8
계	250	100.0

정경임(1980)의 연구결과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을 25.6%와 큰 차이를 보이며, 박명운(1992)의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흡연을 44.8%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흡연동기

응답자의 52.1%가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했으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가 23.6%를 차지하였다. 임태빈(1976), 박명운(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흡연동기

흡연동기	N	%
① 호기심에서 피웠다.	73	52.1
②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20	14.3
③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33	23.6
④ 멋으로 (보기 좋아서)	14	10.0
계	140	100.0

(3) 흡연시의 기분

'흡연시 기분이 매우 좋다'가 22.9%로 나타났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가 4.3%이었다.

〈표-4〉 흡연시의 기분

흡연시의 기분	N	%
① 기분이 매우 좋다.	32	22.9
② 수치감을 느낀다.	13	9.3
③ 어른이 된 기분이다.	11	7.9
④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6	4.3
⑤ 기타	78	55.7
계	140	100.0

(4) 흡연 시작 시기

흡연을 시작한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0.0%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학년이 23.6%를 차지했고 국민학교도 18.6%를 나타내었다.

Weiss(1973)는 폐암환자 486명의 조사에서 흡연 시작 연령이 빠를 수록 폐암발생연령이 빠름을 보고하였다.(이성욱, 1987)

미국의무총감(Surgeon General)의 198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 즉 청소년의 흡연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박명운, 1992)

따라서, 금연교육은 국민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표-5〉 흡연 시작 시기

흡연 시작 시기	N	%
① 국민학교	26	18.6
② 중학교 1학년	6	4.3
③ 중학교 2학년	24	17.1
④ 중학교 3학년	33	23.6
⑤ 고등학교 1학년	42	30.0
⑥ 고등학교 2학년	9	6.4
계	140	100.0

(5) 1일 흡연량

1일 흡연량은 41.4%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으며, 3~5개피가 19.2%를 차지했다.

〈표-6〉 1일 흡연량

1일 흡연량	N	%
① 1~2개피	18	12.9
② 3~5개피	27	19.2
③ 6~10개피	18	12.9
④ 11~15개피	8	5.7
⑤ 1갑 이상	11	7.9
⑥ 일정하지 않다.	58	41.4
계	140	100.0

영국 왕립 의사회는 담배 1개피를 피울 때마다 5분 30초씩 수명이 단축된다고 오래 전에 밝힌 바 있으며 즉 흡연자의 수명은 5~8년이 준다는 것이다. 의학자들은 건강장수를 위협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으로 흡연을 꼽고 있다. (박명윤, 1992)

(6) 음주경험

음주경험에서 비흡연자는 마셔 본 일이 없다가 29.1%, 흡연자는 3.6%로 나타났고, 비흡연자는 가끔 마신다가 14.6%, 흡연자는 42.1%를 나타내었다.

<표-7> 음주경험

음주경험	비흡연자		흡연자	
	N	%	N	%
① 마셔본 일이 없다.	32	29.1	5	3.6
② 마셔본 일이 있다.	58	52.7	44	31.4
③ 가끔 마신다.	16	14.6	59	42.1
④ 자주 마신다.	4	3.6	32	22.9
계	110	100.0	140	100.0

이처럼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음주율이 높으며 흡연과 음주와의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사료된다.

(7) 월용돈 액수

월용돈 액수는 1만원 이하에서 비흡연자는 26.4%이고, 흡연자는 14.3%를 차지했고, 7만원 이상에서 비흡연자는 4.6%이며, 흡연자는 15.0%를 차지했으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월용돈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태빈(1976), 정경임(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도한 용돈은 흡연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자극치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8> 월용돈 액수

월용돈 액수	비흡연자		흡연자	
	N	%	N	%
① 1만원 이하	29	26.4	20	14.3
② 2만원~3만원	49	44.5	48	34.3
③ 3만원~5만원	25	22.7	36	25.7
④ 5만원~7만원	2	1.8	15	10.7
⑤ 7만원 이상	5	4.6	21	15.0
계	110	110.0	140	100.0

(8) 학생의 흡연을 알고 있는 사람

<표-9> 학생의 흡연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N	%
① 어머니	23	16.4
② 친구	72	51.5
③ 아버지	7	5.0
④ 교사	10	7.1
⑤ 아무도 모른다.	28	20.0
계	140	100.0

학생의 흡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친구가 51.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이 아무도 모른다가 20.0%이며, 어머니가 16.4%를 차지했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가장 영향력이 크며 반항, 모방, 심리에서 흡연을 음성적으로 시작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정불화, 이혼, 알콜중독, 실업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흡연율이 높으므로 우선 가정적인 요인을 해소해야 하며, 무관심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지나친 기대와 간섭, 과잉보호 등을 지혜롭게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박명윤, 1992)

(9) 흡연과 학교성적과의 관계

비흡연자의 경우 학교성적은 하위권이 18.2%인데 비하여 흡연자의 경우는 40.0%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태빈(1976), 정경임(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성적이 낮은 학생이 흡연하는 비율이 높고, 흡연은 기억력이 감소되며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학설(Clark, H. Hull, 1924)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10> 흡연과 학교성적과의 관계

학교성적	비흡연자		흡연자	
	N	%	N	%
① 상	27	24.5	25	17.9
② 중	63	57.3	59	42.1
③ 하	20	18.2	56	40.0
계	110	100.0	140	100.0

(10) 흡연과 학교생활의 만족도

학교생활의 만족도에서 비흡연자의 12.7%가 만

족한다고 했으며, 흡연자는 9.3%만이 만족한다고 했다.

또한 비흡연자의 20.0%가 불만스럽다고 했고 흡연자는 35.7%가 학교생활에 불만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하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도가 낮고 불만스럽게 생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11〉 흡연과 학교생활의 만족도

학교생활의 만족도	비 흡 연 자		흡 연 자	
	N	%	N	%
① 만족하다.	14	12.7	13	9.3
② 보통이다.	74	67.3	77	55.0
③ 불만스럽다.	22	20.0	50	35.7
계	110	100.0	140	100.0

(11) 흡연중인 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

학교에서 교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비흡연자군은 65.4%이고, 흡연자군은 53.6%였고,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난다'가 비흡연자군은 9.1%이고 흡연자군은 35.0%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내에서 교사는 특히, 수업 중에 금연하는 것이 학생 흡연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표-12〉 흡연중인 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

구 분	비 흡 연 자		흡 연 자	
	N	%	N	%
①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10	9.1	49	35.0
② 오히려 피우고 싶지 않다.	28	25.5	16	11.4
③ 아무 생각이 없다.	72	65.4	75	53.6
계	110	100.0	140	100.0

(12)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에서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69.3%이고,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0.7%를 나타내었다.

흡연중단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63.9%로 가장

많았고, 흡연계속이유는 습관상의 이유로 46.5%가 흡연을 끊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로서 학생들의 흡연선도에 대한 교육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랫동안의 흡연은 몇 가지 의학적 문제점을 갖는데 그중 하나는 흡연의존성이 생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금연으로 인한 금연증상이 생긴다는 점이다. 첫째, 흡연 의존성에는 습관이나 환경 등에 의한 사회적, 심리적인 면이 있고, 둘째로는 약물학적인 의존성이 그것이다. 의존성은 때로는 치료의 대상이 되며 보험대상 여부에 관한 문제점 혹은 정신과적 및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질환으로 간주된다. 흡연 의존성에 대한 진단기준은 적어도 한달 이상 계속적인 흡연, 금연을 시행키 어려웠던 경우, 금단 증상을 일으켰던 경우, 분명히 흡연에 의한 증상이 있음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한편 금단 증상은 일부의 수면제나 최면제에서 보듯 약물을 중단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정신 의학적 증상을 말하는데 특히 금연으로 인한 금단 증상의 진단기준은 니코틴 함량 0.5mg 이상 되는 담배를 하루에 10개피 이상 적어도 수주일 흡연한 경우와, 급작스런 금연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24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이다. 즉 심한 흡연욕, 불안감, 졸음, 위장관 장애, 집중력 장애, 초조감, 두통 등이다. (김성규, 1986)

따라서, 금연지도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의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담배가 왜 나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설득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박명운, 1992), 학교생활에서의 철저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13〉 장래 흡연태도

장래 흡연태도	N	%
① 중단하겠다.	97	69.3
② 계속하겠다.	43	30.7
계	140	100.0

〈표-14〉 흡연중단 이유

흡연 중단 이유	N	%
① 학업장애	13	13.4
② 건강상	62	63.9
③ 경제면	2	2.1
④ 도의적 측면	6	6.2
⑤ 기타	14	14.4
계	97	100.0

〈표-15〉 흡연 계속 이유

흡연 계속 이유	N	%
① 사교의 도구	8	18.6
② 정서적 안정	7	16.3
③ 습관상	20	46.5
④ 정신집중	6	13.9
⑤ 기타	2	4.7
계	43	100.0

###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

#### (1) 유해성분에 관한 지식

응답자의 97.2%가 니코틴을 담배의 유해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외의 유해성분을 알고 있는 학생비율이 낮았다.

〈표-16〉 유해성분

유해성분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계	
	N	%	N	%	N	%
① 니코틴	243	97.2	7	2.8	250	100.0
② 암모니아	22	8.8	228	91.2	250	100.0
③ 일산화탄소	85	34.0	165	66.0	250	100.0
④ 크레졸	51	20.4	199	79.6	250	100.0
⑤ 시안화물	47	18.8	203	81.2	250	100.0

따라서, 국민학교부터 학교 교육 과정에 담배의 해독을 알려주는 내용의 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유해성을 알게 된 경로

유해성을 알게 된 경로는 TV, 라디오를 통해서가 40.8%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신문, 잡지가 18.0%이고 교사를 통해서 16.8%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학생이 담배

의 유해성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17〉 유해성을 알게 된 경로

유해성을 알게 된 경로	N	%
① 교사	42	16.9
② TV, 라디오	102	40.8
③ 신문, 잡지	45	18.0
④ 부모님	21	8.4
⑤ 기타	40	16.0
계	250	100.0

#### (3)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

응답자의 97.2%가 흡연과 폐암이 관계가 있다고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밖의 질병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표-18〉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

질병의 종류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계	
	N	%	N	%	N	%
① 폐암	243	97.2	7	2.8	250	100.0
② 위·십이지장 궤양	59	23.6	191	76.4	250	100.0
③ 심장질환	100	40.0	150	60.0	250	100.0
④ 고혈압	103	41.2	147	58.8	250	100.0
⑤ 동맥경화증	112	44.8	138	55.2	250	100.0

지연옥(1988)의 연구 결과에서 흡연에 대한 지식이 높고, 흡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록 흡연량은 낮다고 보고한 바 있다. 흡연으로 인해 인체의 여러 기관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화되었으며 따라서 흡연과 질병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킴으로써 흡연량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실태를 조사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대전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2개의 남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995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설문조사 하였으며, 자료분석에 있어서의 통계처리는 실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정도에서 흡연하는 학생은 응답자 250명중 140명으로 56.0%가 흡연 경험이 있었다.
2. 흡연동기는 응답자의 52.1%가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했으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가 23.0%를 차지했다.
3. 흡연시의 기분은 '기분이 매우 좋다'가 22.9%로 나타났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가 4.3%이었다.
4. 흡연시작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0.0%로 가장 많았고, 국민학교도 18.6%를 나타내었다.
5. 1일 흡연량은 41.4%가 일정하지 않다고 했으며, 3~5개피가 19.2%를 차지했다.
6. 음주경험에서 비흡연자는 마셔본 일이 없다가 29.1%, 흡연자는 3.6%로 나타났고, 비흡연자는 가끔 마신다가 14.6%, 흡연자는 42.1%를 나타내었다.
7. 월용돈 액수는 1만원 이하에서 비흡연자는 26.4%이고, 흡연자는 14.3%를 차지했고, 7만원 이상에서 비흡연자는 4.6%이며, 흡연자는 15.0%를 차지했다.
8. 학생의 흡연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친구가 51.5%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아무로 모른다가 20.0%이며 어머니가 16.4%를 차지했다.
9. 흡연과 학교성적과의 관계에서 비흡연자의 경우 학교성적은 하위권이 18.2%인데 비하여 흡연자의 경우는 40.0%를 나타내었다.
10. 흡연과 학교생활의 만족도에서 비흡연자의 12.7%가 만족한다고 했으며, 흡연자는 9.3%만이 만족한다고 했다. 비흡연자의 20.0%가 불만스럽다고 했고 흡연자는 35.7%가 학교생활에 불만스럽다고 응답했다.
11. 흡연중인 교사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비흡연자군은 65.4%이고,

흡연자군은 53.6%였다.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난다'가 비흡연자군은 9.1%이고, 흡연자군은 35.0%를 차지했다.

12. 장래 흡연에 대한 태도는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69.3%이고,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0.7%를 나타내었다.
13. 흡연 중단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63.9%로 가장 많았다.
14. 흡연 계속 이유는 습관상의 이유로 46.5%가 흡연을 끊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15. 유해성분에 관한 지식은 응답자의 97.2%가 니코틴을 담배의 유해 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그 외의 유해성분을 알고 있는 학생비율이 낮았다.
16. 유해성을 알게 된 경로는 TV, 라디오를 통해서가 40.8%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신문잡지가 18.0%이고, 교사를 통해서 16.8%를 차지했다.
17.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에서 응답자의 97.2%가 흡연과 폐암이 관계가 있다고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처음 흡연 동기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해독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스스로 흡연을 삼가하도록 사전에 선도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의 금연지도가 중요하며, 금연교육은 국민학교부터 교육과정에 채택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교사들의 흡연이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흡연교사들은 술선수범하여 금연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흡연 실태를 파악하여 각 학교에 맞는 예방 지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금연 학생 교내 지도시에는, 옷에서나 호흡시에 담배 냄새가 날때는 일단 흡연을 의심해야 하며, 흡연의 동기, 흡연 유형, 니코틴의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8~10명씩 집단 상담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금연 일지를 매일 적게하고, 흡연의 해로움을 깨닫게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사회는 학교에 대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모든 지역의 담배 자판기를 없애고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들의 흡연 충동과 흡연 기회 및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여 주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일순(1988), 흡연과 건강, 서울 : 의료보험연합회, 2
- 김성규(1986), 흡연소고, 최신의학, 제29권 7호, 11~18
- 김창수(1984), 흡연과 금연, 가정의, 제5권 제5호, 35~41
- 금동우(1988), 담배의 해독 및 완전금연법, 부산 : 광천출판사, 27~28
- 박명운(1992),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한국 학교 보건학회지, 제5권 제2호, 24~30
-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실태 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경임(1980), 일부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 제19권 제1호, 60~70
- 지연옥(1988), 금연을 위한 교육 방법별 접근이 흡연 행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lark, h. Hull(1924), The Influence of Tobacco smoking on Mental and Motor Efficiency, 150



〈ABSTRACT〉

# A Study on Male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Patterns

Lee Ki Young  
(DONG SHIN HIGH SCHOO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moking patterns in high school student and to give student smoker effective information.

The sample of 250 male highschool students out of two different schools in Tae-Jŏn was questioned from July 10th to 15th, 1995. In analyzing these date, the statistics shows the realities by means of number of stud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to 17 items as follows.

Regarding the level of smoking, 140 students out of 250 admit that they have ever smoked. 52.1% of smoking students say that the motivation of beginning smoking is mainly curiosity. The survey shows that 22.9% of smoking students feel very good when smoking. It also shows that 30.0% of smoking students began smoking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With regard to the volume of smoking per day, 41.4% of smoking students smoke variably. 42.1% drink when smoking. 15.0% spend more than ₩ 70,000 a month.

About the question who knows the fact of their smoking, 51.5% answer that their friends know the fact of their smoking.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chool performance, 18.2% of non smoking students make poor grades as compared with 40% of smoking students. 9.3% of smoking students say that they are satisfied with the school life, but 35.7% of them are not satisfied. Regarding the attitude to smoking teachers, 35% of smoking students state that they are affected by them. 69.3% of smoking students say that they will stop smoking, while the remaining 30.7% say that they will keep smoking.

The reason of 63.9% to stop smoking is that smoking is bad for the health. The reason of 46.5% to keep smoking is the acquired habit of smoking. 97.2% know the fact that the major element of cigarettes is nicotine and it is very harmful to the health. 40.8% recognize the harmful effect of smoking by TV and radio programs. 97.2% know that smoking could cause lung cancer.

From the above results, I propose as follows

We should make specific plan to keep smoking by simple curiosity from being developed into habitual smoking. We should teach them how harmful smoking is and make them stop smoking by themselves. It is very essential for family members and teachers to give continuous interest since childhood. As the teacher affect the students very much, they

should give up smoking first.

The incidence of smoking should be identified in each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smoking prohibition programs relevant to each school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local community should ban cigarette vending machines. Cigarettes should not be sold to adolescents. By setting every place where adolescents gather including schools non-smoking area, we should decrease their impulse to smoke, then smoking opportunities, and harmful effects to them caused by passive smoking.